

팬더믹 이후 오프라인 해외 마켓을 통한 K콘텐츠의 글로벌 도전을 이어갈 국내 유수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작품들을 전문가 심사위원 들께서 신중하고 성실히 평가했습니다. 다만 몇몇 회사 작품들의 내용들이 다소 부실한 감이 있어서 실질적인 평가에는 조금 한계가 있던 고충이 있어서 다음 평가에서는 자료가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평가를 마치고자 합니다.